

2018년 새 생명전도축제 7주년을 위한 목장별 워십 둘째 주일
- 전도대상자 작정 주일 -

* 찬양드리기

1.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520장
2. 내 영혼의 찬양 167번 '세상 모든 민족이'

* 기도드리기 / 합심하여 / 다같이

1. 새 생명전도축제 7주년을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2.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 통성기도 후에 대표기도 - 김금순 권사

* 성경읽기 - 마가복음 16장 14-20절.

1. 본문살피기

- 1) 예수님께서서는 왜 열한 제자를 꾸짖으셨나요? (14절)
-

- 2) 구원 받을 사람과 정죄 받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6절)

가) 구원 받을 사람 : _____

나) 정죄 받을 사람 : _____

- 3)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

- 4)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대에 나타났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17-18절)
-

- 5)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

* 말씀듣기 / 복음전도와 표적 / 류성철 목사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죄로부터의 회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 성령 안에서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이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인생의 끝, 구원과 멸망의 갈림 길에는 늘 전도라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뒤따르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사람을 안타깝게 찾고 계십니다.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서둘러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당신이 전도할 때 바로 그 때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당신의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에 전도 칠 주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전도 축제 주일을 우리 교회의 추수 감사주일에 맞추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한사람씩 반드시 전도하여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난 것입니다. 이 일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든 흑석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목장별 워킹 및 발표

- 목장별로 모여 아래의 물음에 각자가 답하고 함께 토의 합니다.
- 목장 장은 한 주간 기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꾸짖거나 무안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시간을 지키고 기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1. 당신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으며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2. 전도대상자로 여러분이 적어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아래의 분류표를 따라 분류해
봅시다.

나의 전도 대상자 이름 :

전도가능 순위 :

(전도 가능순위표)

- 1 순위 - 한 번 이상 교회로 나오시도록 권유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신 분
- 2 순위 -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이 높으신 분
- 3 순위 - 본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의 부모, 혹은 자녀
- 4 순위 -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
- 5 순위 - 가끔 이라도 교회에 방문하신 분
- 6 순위 - 교회 행사에 우호적인 분
- 7 순위 -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분(질병, 자녀문제, 가정, 경제 문제 등등)
- 8 순위 - 성품이 유순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리시는 분
- 9 순위 -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는 분

3. 전도 대상자를 위한 각 목장의 기도카드 만들기 (목장원들이 대 예배 시 작성한
전도 대상자들의 위한 기도의 카드를 만들어 모든 목장원이 공유합니다.)

들어갈 내용 : 이름, 연락처 (전화, 주소) 나이, 취미, 특기, 가족관계, 기도시간
기도제목, 만날 시간 등등

만남의 시간 :

4. 위 전도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 토론하고 실천계획 세우기

* 기도드리기 1.

1. 위 3번에 적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 전도 축제주일에 20명의 성도가 초청되게 하소서.

*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참고 - 전도 노하우 10가지}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만 잘 되더라”

모범적 크리스찬 중에서도 전도만 하려면 몸을 움츠리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한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됐으면서도 무서운 기세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숙련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전도 초보자'들을 위해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필수 지침과 노하우를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이 하려고 말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저는 내성적이라”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에 다닌지 얼마 안돼서...” 등 변명은 모두 “전도를 자신이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 그 과정은 100%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이를 깨달으면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2)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발견하기.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전도의 기본 중의 기본, '평생 1명 전도법'(규장)의 저자 류익태 목사는 아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전도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방전도도 좋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까이서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3) 보고 또 보고.

전도에 있어 자주 대면하는 것 만한 지름길이 없습니다. “전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기다는 것, 출근시간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다른 의사보다 회진을 몇 회나 더 많이 돌면서까지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한 “의사 전도 왕” 이병욱 교수 등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얼굴을 익힐수록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4) 칭찬으로 시작하라.

“한결 젊어 보이십니다” “이 식당 물맛이 끝내줍니다” 등 칭찬으로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김기동 집사는 “칭찬은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흉을 보면서 겉으로만 칭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칭찬거리를 찾아보면 결국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진심으로 전도하려는 열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 손은 유일한 밀전.

“전도한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거만해? 맨 날 자기 잘사는 얘기만 하고...” 전도를 하다보면

비난을 듣기가 다반사이지만 성경에서 이미 복음 전도의 길이 고난임을 배운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좁마 전도 왕” 김인아 전도사에 따르면 교만한 상대에게는 자세를 더 낮추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한번은 아이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사람을 위해 “아이를 봐 주겠다”고 나섰다가 돈 받고 부리는 보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김 전도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합니다. “그 일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철옹성 같은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6) 성격과 기질을 알자.

막무가내 식 돌진이 예상외의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상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한결 효과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도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점을 파악한 김인아 전도사는 “뜨겁게 믿을 사람”을 위해서는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등 전략을 세워 전도하였습니다.

(7) 교회와 상호 협력하라.

전도자의 사명은 대상자를 좋은 교회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전도에 있어 교회의 역할이 50%는 되는 셈입니다. 류익태목사는 “전도자는 교회의 물결을 타야 힘이 난다”고 강조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체에서 성령이 느껴져야 전도자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화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8) 전도자가 곧 그리스도인의 거울.

그리스도인이 모두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전도자들은 상대방의 눈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꾸밈을 늘어놓거나 다른이의 흉만 본다면 복음이 전해질리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를 강조하라는 김기동 집사의 말처럼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삶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는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후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왜 하는지 모르고 신앙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에 나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일 뿐입니다. 전도에 있어 어떤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때는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령이 담긴 그릇'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류익태 목사는 “(전도 대상자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영혼이 구원 받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나서면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수없이 퇴짜를 맞아도 또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